

숨 턱턱 막히는 현장...힘겨운 '폭염과 사투'



<중> 무방비로 노출된 실외노동자

"폭염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 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별 수 없나요. 소금이라도 먹으며 버텨내야죠"

3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의 온몸이 벌써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30도를 넘는 온도에 습도가 87%에 달해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지만, 이들은 차량에 매달려 음식물쓰레기통을 신고 내용물을 처리하길 반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 놓인 120ℓ 용량의 음식물쓰레기통은 며칠간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로 가득했다. 쓰레기통은 넘치기 일보 직전으로 뚜껑이 반쯤 열려있어 음식물과 액체가 바깥으로 흘러내렸지만 이들은 익숙한 듯 차량에 고정시키고 음식물을 처리했다.

10년째 환경미화일을 하고 있는 박용선(55)씨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해가 뜨기 시작하면 머리가 핑 돌 때가 있다"면서 "더위도 더위지만 무더운 여름 음식물쓰레기가 더 빨리 부패해 지독한 냄새에 두통이 계속된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안전모를 벗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길 반복했다. 올해로 20년차인 환경미화원 역시 조

온열질환자 83%가 실외서 발생
환경미화원 무더위·냄새와 전쟁
"땀별속 작업 땀 머리 핑 돌 때도"
체감 33도 넘어도 작업단축 어려워
배선노동자들 염분 보충하며 작업

금이라도 땀약병을 피하기 위해 넥커머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뚝뚝 떨어지는 땀을 막긴 역부족이었다.

박씨는 "원룸촌 등 골목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허리만큼 오는 음식물쓰레기 통을 끌고 다니며 수거해야 한다"며 "골목마다 오르막이 심한 경우도 많고 가끔 비닐봉지째 버려진 경우도 있어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가장 뜨거운 오후 2~5시엔 육외 작업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를 지키는 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3일 광주시 광산구 낮 최고기온은 36.1도까지 치솟았지만 새벽 5시 광산구 평동 옥동차량기지에서 시작한 이들의 일과는 오후 3시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쉬어간다면 이들이 맡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이 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왼쪽) 같은날 오후 장성군 남면에선 배선노동자들이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실외노동자들에게 주기적 휴식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정해진 작업량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까닭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마을에서는 전기배선노동자들의 변압기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가장 더운 시간대였지만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은 배선노동자들은 지상 13m 높이에서 연신 작업을 이어갔다.

좁은 마을 길목을 차단한 채 이뤄지는 작업이라 잠시도 멈출 수 없었다.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히는

도구는 차에서 꺼낸 얼음물과 포도당이 전부였다. 얼얼과 목에 얼음물을 들이 부은 작업자들은 주머니에서 알약 형태의 식염포도당 두 알을 꺼내 먹었다. 땀으로 인해 손실된 염분을 일종의 소금인 식염포도당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신광식(59) 현장안전관리자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작업을 단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열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한낮과 저녁의 온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5개 작업을 하는데, 잠시 쉬게 되면 작업량이 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시간 야외 노동으로 인한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5월~7월)에 따르면 실외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83.3%(299명)를 차지해 실내 온열질환자 비율인 16.7%(60명)보다 5배 높다.

실외 온열질환자의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 25.9%(93명)에 달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6.2%), 열사병(20.1%), 열경련(18.1%), 열실신(12.0%), 기타(3.6%) 순이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파크골프장 새벽 공짜 골퍼들 왜?

폭염 피하러...매일 30여명 적발

광주 일부 파크골프장에서 노인들이 새벽에 몰래 파크골프를 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비교적 선선한 새벽을 노려 '공짜' 파크골프를 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새벽부터 출근해 관리에 나섰다, 그럼에도 날마다 30여명씩 적발되는 등 무단 이용객이 줄지 않아 진땀을 빼고 있다.

광주시남구체육회(체육회)는 3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파크골프장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를 치던 노인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나무 클럽을 이용해 작은 공원 부지에서 가볍게 즐기는 골프로,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승촌파크골프장 또한 하루 평균 300여명의 이용객들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다.

문제는 새벽에 이용료 1600원조차 내지 않고

몰래 파크골프를 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승촌파크골프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별도의 출입 차단 시설이 없어 24시간 출입이 자유롭다.

체육회 관계자는 "평일 20여명, 주말 50여명까지 무단 이용자가 적발됐다"면서 "무단 이용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이용료만 부과하고 귀가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직원의 출근을 1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감시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그보다 더 일찍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체육회에는 "누구는 공짜로 이용하고 누구는 돈을 내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운영 시간을 더워가 심하지 않은 오후 6시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기존 1명이었던 파크골프장 관리 인력을 충원해 오후 7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인력이 충원되면 운영시간도 낮아져 따라 탄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불법도박 수익금 300억 자금세탁 일당 검거

광주서부경찰, 4명 입건

사들인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통해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해준 일당이 줄줄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A(41)씨와 B(32), C(26), D(22)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일대에 20개 유령 법인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업 직전인 법인들을 사들여 유령 법인으로 남겨놓고, A씨 등 명의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또 지인들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총 2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 달 35억여원을 범죄조직에게서 이체 받은 뒤, 법인 간 이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세탁했다. 또 돈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계좌 이체의 경우 0.3%,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1%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에 법인 사무실을 차리고 계좌-인감 관리책, 인출-재이체 심부름꾼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컴퓨터 6대, 휴대전화 14대를 운용하며 범죄 조직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2022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1년 동안 300억여원을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범죄 수익금 6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직원이 6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조직원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오늘 국내 송환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 도피자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유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새벽 5시20분(한국 시각) 인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귀국후 바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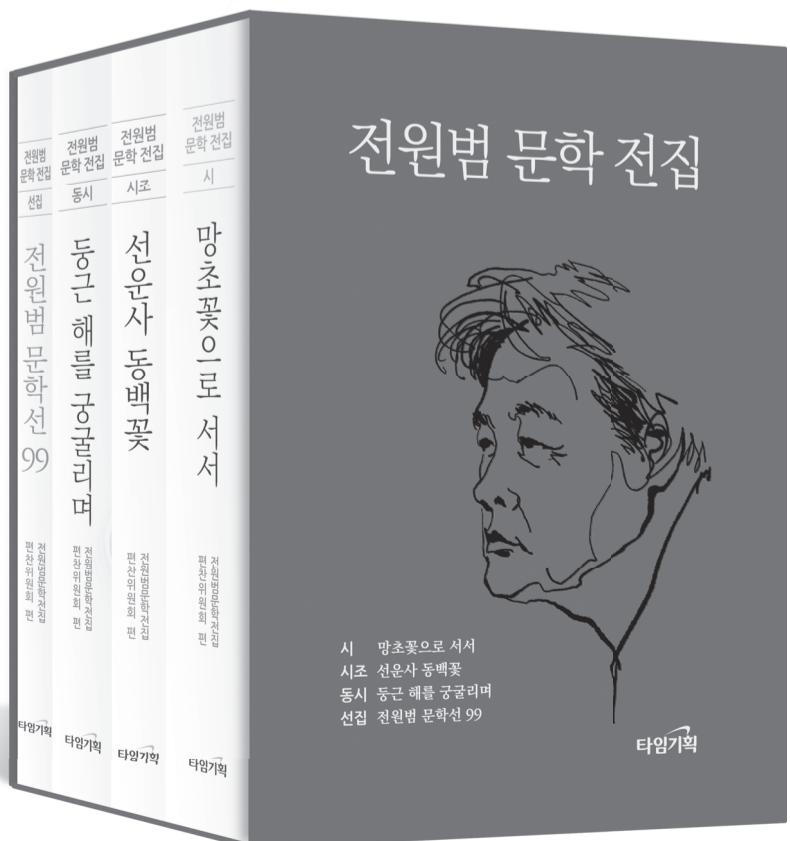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주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유병언 회장의 사실상 후계자로 회사 돈 559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더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

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은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발매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hb@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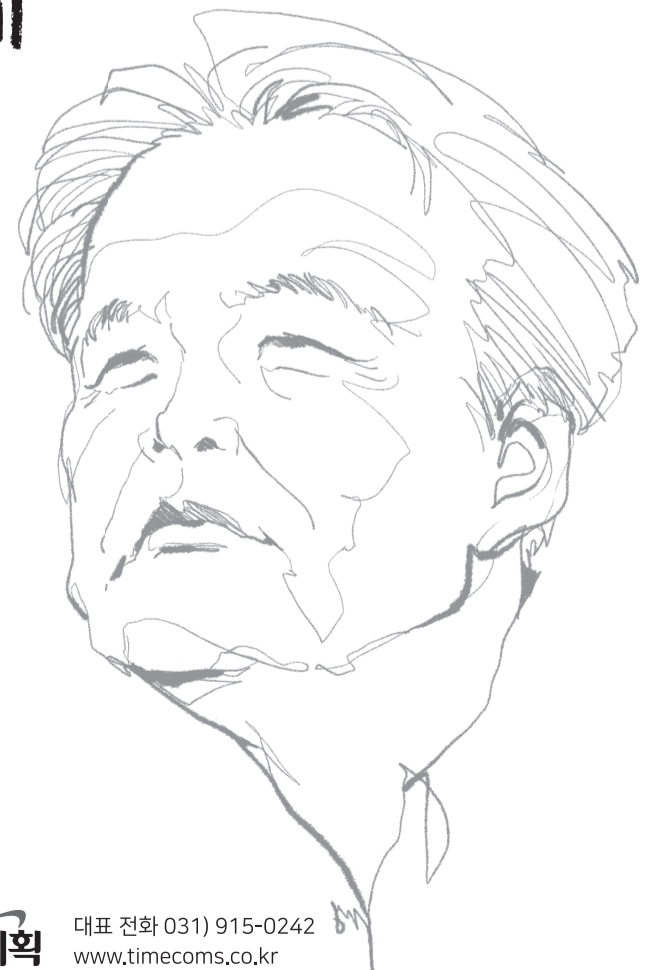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